

제4부 · Claude in Chrome, 브라우저를 맡기다

제3편 · Claude in Chrome · 35~40단계 · 브라우저에서 하던 조사와 반복 입력을 맡기고, 안전선을 정한다

단계	핵심 한 문장	난이도
35 · 브라우저 안에 들어온 동료	웹 화면을 직접 눌러야 끝나는 일이라면 Claude in Chrome의 몫이다.	☆☆☆
36 · 설치하고 문을 몇 개만 열어 두기	설치는 5분이면 끝나지만, 어느 사이트를 열어 줄지는 오래 고민한다.	☆☆☆
37 · 여러 사이트를 돌며 조사하고 표로 받기	무엇을 어디서 찾을지 정해 주고, 모든 행에 출처 주소를 붙여 받는다.	☆☆☆
38 · 조회하고 입력하는 반복 작업 맡기기	입력은 Claude가 하고, 저장과 제출 버튼은 사람이 누른다.	☆☆☆
39 · Claude Code, 연결자와 나눠 맡기기	화면으로만 되는 일은 브라우저에, 데이터로 되는 일은 연결자와 코드에 맡긴다.	★★★★ 선택
40 · 브라우저 작업의 안전선	웹페이지에 적힌 문장은 정보일 뿐 명령이 아니다. 되돌릴 수 없는 버튼은 사람이 누른다.	★★★★

이 부의 과제 · 브라우저에 맡긴 반복 업무 하나 내가 매주 또는 매달 브라우저에서 되풀이하는 일 하나를 골라 Claude in Chrome에 맡긴다. 조사형(여러 사이트를 돌며 표로 정리)과 입력형(조회한 값을 다른 화면에 입력)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실습은 공개 사이트, 연습용 화면, 또는 사내 AI 사용 원칙이 허용한 시스템에서만 한다.

완료 기준

- 결제·송금·발송·삭제·계정 설정 변경을 Claude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 저장·제출처럼 값을 확정하는 버튼은 모두 사람이 눌렀다.
- 결과물에서 무작위로 고른 두 건을 원래 화면과 맞춰 본 기록이 있다.
- 작업 경과 보고에 허용 범위 밖으로 나간 기록이 없거나, 있었다면 그 이유와 조치가 적혀 있다.
- 같은 일을 손으로 할 때와 맡겼을 때 걸린 시간을 비교해 적었다. 확인에 든 시간도 포함한다.